

TV 속에서의 노인 소외

-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

최윤자

1.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에는 식구(食口)와 생구(生口)의 개념이 있었다. 식구는 그야말로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가족이었고, 생구는 노비나 말, 소 등과 같이 분리된 공간에 거주하면서 식구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였다. 이와 같은 의미를 확대 해석한다면, 현대 가정에서 TV는 식구다. 가족들이 모인 공간에서 TV를 매개로 하여 희로애락과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니 말이다. 더구나 TV와 나는 양자간의 교감으로 봐도 평생을 통해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되니, 스승이나 친구로 보아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요즘의 식구 울타리에 문제가 있다. 위의 전체에서처럼 TV조차 식구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다. 바로 노인이다.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편성 원칙은 평일 오전 방송은 주부 프로그램, 오후 5~6시 어린이 프로, 8시 전후에 가족 프로, 심야에는 영화나 특별 기획 프로로 하여, 시청자의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만든다. 이 중 청소년이나 직장인은 모두 8시 전후의 가족 프로에 시청자로 넣는다고 한다면, 노인도 이 시간대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다. 단연코 시간표 배정에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노인 문제를 거론하자면, 산업화에 따른 가족 구성 형태의 변화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그런 절차 없이 간단히 둘러보아도 TV 속에는 노인 시간이 없다.

가족과 함께 살거나 노인 세대 만 거주하거나 간에, 전체 연령 중에 가장 외로운 것은 노인이다. 직업, 학교, 일, 쇼핑, 놀이, 연애, 몰입, 목표도 없고, 공간까지도 없는 것이 노인이다. 다만 시간 만 있을 뿐이다. 이런 노인에 대해, 사회적인 복지 정책은 따로 보더라도 시간에 대한 모자이크는 TV가 해 주어야 한다. 인구 비율에 따른 배려만큼이라도 말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TV 속에서의 노인 소외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우선 노인의 실태에 따른 TV 의존도를 알아보고, 가족 프로그램을 위주로 본 노인 부재,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로 나누어 살펴본다.

2. 노인의 실태에 따른 TV 의존도.

우선, 노인의 기준은 時空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산업의 구조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명도 짧고, 노인 인구도 적었다. 인류의 역사가 거듭될수록 발전적 요인에 의해 인간의 성장점은 길어졌다. 앞으로도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의 기준점은 더욱 늦춰질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경우, 현재 전체 25%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결국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는 고령화 사회를 형성하게 되며, 노인에 대한 논의를 부각시킨다.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TV는 노인들에게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어야 할까?

물론 전체 중 노인 인구 구성비에 중요성을 두기보다는, 경제 활동 능력과 사회 참여도, 상업적 구매력 등에 비중을 둘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 원칙에 충실한다면, 노인은 그야말로 경제성이 없다. 그러나 사회 생활의 수단은 경제일 수 있지만, 경제 활동의 기준은 규범적이어야 한다. 즉, 경제성의 유무 보다는 도덕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을 대함에 있어 「쓸모」라는 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기에 앞서, 인간에게 존재지상의 경이심과 애친경장(愛親敬長)의 사랑이 넘치고 윤택한 인정미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노인을 소외 계층으로 따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더하여 (한국 노인 문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소외와 고독으로, 전체 문항 중 30%를 차지한다. 또한 생물학·사회학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활동이 현저하게 감퇴되고 즐거움이 감소되어 가면서, 고독과 무력감으로 인해 노인의 자살이 급증한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적 측면에서 사회적인 배려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독과 소외에 대한 대책으로 일거리, 노인정, 학교 운영 등을 들 수 있겠지만, TV의 역할도 크다 하겠다. 노후 생활의 가장 즐거운 일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일과 친구, 가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라디오·TV 시청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TV가 노인들의 고독과 소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보여 준다. 물론 즐겁다는 의사 표현 이외에도 습관적인 소일거리로 보는 TV 시청률까지 하면, 그 비중이 크며,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노인의 TV 의존도는 어떨까? 일단 한국 노인 인구의 생활 환경을 파악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이외에도, 노인의 활동 유무, 교육 정도, 지역적 차이, 동거인 유무 등도 TV 시청과 많은 관련을 갖는다. 즉, 노인 대학이나 복지관, 농업 종사 등 직업이나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TV 의존도가 약한 편이다. 지역적으로도 이웃이 있고 골목 문화가 남아 있는 농촌일 경우에는 노인들의 소외나 고독이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 형성된 노인 인구는 역사적 특이성을 갖는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경제 개발 시대를 살아옴으로서, 이른바 자신들의 문화가 없다. 교육적 혜택이나 경제적 자립, 여가(취미) 활용 등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 노인 중 대부분이 활동성이나 거주 지역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무중력 상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일이 없고, 여가를 활용할 만한 돈과 습관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TV는 노인에게 일이며, 취미이고, 고독을 해소하는 가족인 것이다.

이상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그에 따른 TV의 역할, 생활 환경에 따른 TV 의존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3. 가족 프로그램을 위주로 본 노인 부재

8시 전후의 프라임 타임 대에 편성되는 방송 포맷은 대부분 오락 부문이다. 시청자의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이 시간 대를 가족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 드라마, 코미디, 퀴즈 쇼,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요즘 이 시간 대에는 (TV 내무반), (청춘 시트콤), (시트콤-멋진 친구들), (감성 채널 21), 일일 연속극 등이 방송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노인이 포함된 가족 대상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서두에서 밝혔듯이 단연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가족 프로그램에서의 노인 부재에 대해 살펴보자.

이 시간 대에 프로그램은 크게 나누면 드라마와 오락이다. 드라마는 일일 연속극과 유행병처럼 경쟁적인 시트콤의 형태이고, 오락은 퀴즈와 코미디로 구분된다. 이 중 드라마

는 두 가지 모두 노인에게 적절한 내용은 없다. 우선 드라마의 주제가 노인과는 거리가 멀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 대의 미니 시리즈도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다. 사랑도 거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녀간의 애증적 사랑이 대부분이다. 돈과 미모, 배신, 과거가 4/4 박자로 굴러가서, 이미 그렇고 그런 결론이 보이는 젊은 드라마 뿐이다. 물론 노인도 사랑 드라마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사랑의 주인공과 더불어, 함께 설정된 주변 인물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는 가능하다. 그러나 오직 사랑이 모든 것을 좌우할 때는 외면하게 된다. 현재 방송 중인 (온달 왕자들-MBC), (좋은 걸 어떡해-1TV)나 (가을 동화-2TV), (줄리엣의 남자-SBS)가 모두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고, 노인을 제외한, 「젊은 가족」이 시청하는 드라마이다.

시트콤 또한 노인이 함께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멋진 친구들-2TV)은 방송 일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을 드라마화 함으로서 방송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넓히고, 단막 시트콤의 웃음을 통해 하루를 정리한다는 기획 의도를 지녔다. 현재로서는 연출자가 갖고 있는 의도와 같이 별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친구-MBC)는 연기자 개인의 인기이든, 대본의 구성력 때문이든, 최고의 시트콤 위(位)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표적인 시트콤조차도 노인들의 채널 고정은 어려울 것 같다. 젊은 시청자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이나 대사, 행동이 빠르고 과장되어 노인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 자칫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카페에 멋모르고 들어갔을 때의 어눌함이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다.

이와 같이 연속극이나 시트콤 드라마에서 노인 부재를 살펴보았지만, 논리의 비약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된다. “젊은이 대상이니까 노인들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거나, “평범한 소재와 다양한 재미가 있는 프로인데, 왜 노인에게는 적절치 않다는 것인가 “ 하는 변(辯)이다. 허나 이 반론은 대다수 노인의 일상과 심경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기 중심적 사고이다. 실제로 노인과 함께 생활을 해보면, 함께 볼 있는 TV 프로가 없다는 한계점 때문에 채널을 여러 번 돌리지만, 결국 노인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Site)는 드물다.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시트콤-세친구)를 노인이 볼 수 있을까요 “ 라고 물으면, 모두들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가족 드라마에서 노인들의 현 주소인 것이다. 그러나 분명 이 한계를 극복한 잘된 프로-공존 드라마-는 있다. (옥이 이모-SBS), (허준-1TV), (왕룽 일가-SBS), (보고 또 보고-1TV) 등은 세대 공존이 가능했던 드라마가 아닌가?

오락 포맷은 노인들이 시청하기에 어떨까? (TV캠프-2TV), (고교 캠프-2TV), (삼성 채널 21-2TV), (뮤직 센터-SBS), (뮤직 뱅크-2TV) 등은 처음부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TV내무반-1TV), (칭찬합시다-SBS), (메디컬 쇼-MBC) 등은 이른바 거실용 가족 프로이지만, 노인이 낄 자리는 없다.

퀴즈를 통해 코미디를 연출하든, 풍물 답사를 통해 퀴즈를 풀던 간에, 이 프로들의 방송은 속도가 빠르다.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30대가 보기에도 숨이 찬다. 방송 진행자나 출연자 대부분이 젊은층이면서, 그들 간에 오고가는 대화가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주 쓰는 단어로는 “한(힘), 왕(짜증), 조직(냄새), ~합네다, 방송계의 지존, 엽기(적)” 등이 있다. 이러한 말들은 TV를 한 몇 주 보지 않거나 젊은 대중 문화를 모르면, 자칫 은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30대가 느끼는 한계를 60대 노인들은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모두 부정적 요인 만 지닌 것은 아니다. (칭찬합시다)와 같이 TV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것이거나, (TV내무반)과 같이 군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추억 더듬기 소재도 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노인이 속해있는 가족을 염두에 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혹 60세 이하의 어른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다.

더하여, 주말에 방송되는 프라임 타임 대의 방송 포맷은 최악의 가관이다. 각 방송사마다 프로그램의 제목 만 다를 뿐, 그 구성 방식과 시청 대상자는 구분 없이 똑 같다.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주말 TV이다. 가령 여자 연예인들이 요리 맛을 보고 재료 알아 맞추기, 팀별로 모여 요리 장난(?)하기,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물놀이(수영) 하기, 불우 이웃 돕기 명제 하에 한강물 건너기 등등 그 내용이 동네 소꿉놀이 수준이다. “저 연예인이 하는 행동은 왜 저리 유치할까?” “방송이라는 이름 하에 저치들이 꾸미는 제작비와 (따르릉 1000원 입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무관한 것인가 “ “방송의 젊은 피는 한국 사회를 활기차게 하는가 “ 등의 회의를 갖게 한다. (자유선언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밤에), (기쁜 우리 토요일) 등이 모두 주말 저녁에 방송 공백을 느끼게 한다.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노인층 뿐만 아니라 대상자인 청소년들에게도 마땅치 않다.

결국 가족 프로그램의 경우, 주간에는 노인이 외출 중이고, 주말에는 어른은 모두 외출하여 청소년 잔치이지만, 그들은 인스턴트를 먹고 있다.

4. 노인 대상 프로그램의 조사

불특정 다수에게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의를 한다면, 사람들의 대답은 어떨까? “글쎄요 ~ “ 라는 모호한 답변이 대부분일 듯 싶다. 그만큼 프로그램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소외된 노인은 TV 속에서도 빈곤한 것이다.

서너개 되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실버-1TV), (언제나 청춘-1TV), (아름다운 인생-MBC)이 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가요 무대-1TV), (전원 일기-MBC), (전국 노래 자랑-1TV) 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위의 프로그램들을 조금 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노인에게 무성의한 방송 편성을 알 수 있다. 일단 수신료 만으로 운영되는 공영 방송(1TV)은 그나마 노인 대상 프로그가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방송(SBS)의 경우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또한 (언제나 청춘), (아름다운 인생)도 매일 방송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아침 6시에 동시 편성되어 있다. “평일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방송을 하더니, 휴일 아침에는 노인들이 출근하는 것일까! “ 이는 경쟁력과 시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대로 편성하면서, 구색 맞추기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앞서 주지한 것처럼 「쓸모」라는 경제 논리로 노인을 배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총체적 흐름 이외에 방송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선, 방송 내용의 시대 착오적 기획과 노인 전체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화를 들 수 있다. 대표적 노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일요일 아침에만 방송되는 것으로 (언제나 청춘-1TV), (아름다운 인생-MBC)이 있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의 시각으로 노인을 얘기하고 있다. (언제나-)는 농촌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아름다운-)는 도시 노인을 주로 한다. 그러다 보니 양쪽의 일부 노인만을 다루고,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들의 얘기가 아닌 것이다.

(언제나-)는 사랑의 우편 배달부를 통해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 전달식을 갖는다. 여러 번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효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TV를 보지만, 부모를 잊

은 자식들은 이런 것은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은 TV라는 매개체가 없어도 찾아 뵈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은 보지도 느끼지도 않으며, 그런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앞의 머릿글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한국 노인들은 특별성을 지녔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에, 대부분의 노인이 학교, 취미, 경제적 자립 등이 없는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충실할 수 없었고, 사회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소외되어 살아간다. TV가 이 문제들을 해소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노인의 실태에 대한 바른 통계를 통해, 잘 살아가는 소수의 노인보다는 여러 부분에서 소외되어 TV 보는 재미를 소일거리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웃이 살아 있는 농촌 노인들은 TV를 잘 보지 않는다. 이웃과 지내고, 농사일도 하시기에 찾아서 TV를 보지는 않는다. 일도 이웃도 개인적 취미도 없는 분들이 TV를 보시면서 소일하신다. 바로 그런 분들이 갈등 없이 볼 수 있는 프로를 만들어야 한다.

(아름다운-)에서는 노인들의 맞선을 주선한다. 이미 경제적·문화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 맞선에 나선다. 그러나 이렇듯 갖춘 노인 분들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며, 이 분들은 TV라는 매개체가 없어도 이미 꽤 괜찮은 노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는가 반문해 볼 일이다. 또한 성공한 노인들에 대한 취재물도 그렇다. 그들은 할 일도 있으시고, 잘 살고 계신다. TV가 일하는 노인, 건강한 노인만을 보여 준다고 해서, 여건 상 그렇지 못한 노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 할 수도 없다. 오히려 자괴감 만 커지지 않을까 싶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노인 프로그램이라면 노년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개일 뿐,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도, 동기유발도 이루어낼 수 없는 전시회일 뿐이다. 더하여 가끔 다루어지는 노인은 국악 취향이라는 취지는 현 노인들의 유행가 18번도 모르는 시대 착오적 기획이다.

노인 전체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화도 문제이다. 흔히 여러 프로에서 간간히 보이는 노인은 이렇다. 드라마에서는 완고하고 구두쇠인 할아버지와 치매로 인한 노망을 통해 웃음을 주는 할머니를 자주 접한다. 오락 프로에서는 말귀 어두운 노인의 동문서답식 대답을 보여주거나, 괴팍한 인간성으로 젊은이들의 대화에 놀림감이 되는 이미지이다. 이는 노인 전체에 대한 사회 인식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인은 그저 할 일 없고 성가신 존재로 부각되어, 이미지가 고정화될 수 있다. 바르게 사시고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갖춘 어른으로서, 노인의 경험을 온고지신해야 한다는 긍정적 이미지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을 말이

다.

둘째는 아나운서들의 비전문성이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그 하나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에게 질문할 때는 “어린이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볼게요. “라고 하면서, 노인 분들에게는 “할머니, 자식들에게 한 마디 해봐요. “ 식이다. 아무리 아이가 어른의 스승(??)이지만 말이다. 또한, 노인에 대한 결례이다. (좋은 세상 만들기-sbs)에서 진행자는 계속 놀려먹기 식의 질문을 한다. “할아버지도 바람 피워보세요. “ “할아버지도 저 옆에 할머니 스타일이 싫죠. “ “할아버지도 비아그라드시고 싶죠. “ “할아버지 무식해도 인생 사는데 지장 없으셨죠. “ 등등이다. 개인적인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할머니.할아버지라는 단어에는 이미 성적(Sex)인 요소들이 배제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분들에게 방송의 재미라는 명분 하에 연세에 대한 존경을 무시한다면, 사회적 질서는 없다. 또한 이 부분은 비전문성이라는 표제에는 속하지 않지만 함께 넣어본다. (가요 무대) 진행자의 녹음기적 멘트 문제이다. 방송의 연속성이나 정형성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행자는 매회, 365일 똑 같은 인사말·끝말을 한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 해외 동포, 근로자 ~ “ 식이다. 몇 번 지나쳐 본 사람이라도 다 외우는 형편이니, 이걸 식상감 차원이 아닐까 싶다. 아무리 노인이지만 반복된 어휘에는 친근감 이전에 권태감을 느낀다.

셋째, 노인들의 생활 양식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 노인들은 기상과 취침이 빠르다. 그리고 낮시간은 대부분 소일거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저녁 10시 이후이다. 사실 청장년 층이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10시 이후이다. 그렇다면 두 연령층과 시간 이용도를 바꾸어야 한다. 물론 노인 프로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미래 지향적이 방송 편성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배려된다면 시간 안배를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경제논리에 의해 끼워 넣기 식으로 편성하거나, 노인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제작 관습에 익숙해 있다. 전통적 윤리 의식을 망각한 TV로 인해 일그러진 노인의 초상을 그려 놓거나, 세대 차이를 능력·인격 차이로 생각하는 편협한 방송인들이 많다.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노인의 이모저모를 살펴가야 한다.

5. 맺는 말

TV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기도 하고,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한다.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긍정적으로 수행한다면, 이 보다 더한 노벨상 감은 없다. 그러나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이 기능을 이루어 내기는 무척 힘들다. 다만, 상업성·편파성·오락성만은 지양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무감은 갖추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동안 각 방송사가 각 프로그램의 장수는 추구하면서, 인간 수명의 연장이라는 사회 현상을 수용하여, 장수 연령 즉 노인에 대한 배려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 이제라도 고령화 사회라는 흐름을 반영하여 노력하는 TV가 되어야 한다. 노력의 의지가 뚜렷하다 보면, 사회도 노인을 인식하는 분위로 바뀔 것이다. 이에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개인적인 절박함으로 시작하여, TV에서 노인의 몫을 요구한 것이다.

그 동안 TV 프로그램이 노인에게 소홀했던 부분은 많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을 위한 프로도, 노인이 포함된 가족 프로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것은 아마 요즘 최고의 소비층이 청소년이기에 프로그램 또한 그들 위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청소년의 시청률도 높고, 광고비의 경쟁력도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질 좋은 “ 방송과 “많이 보는 “ 방송은 서로 상반 관계 만은 아니다. 노인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세대 공존이 안되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각적인 창의성, 현실성, 전략성을 고려해서 만든다면, 얼마든지 흡인력 있는 “당기는 “프로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오락 프로그램만을 원하는 않는다. 뉴스나 (인간극장-2TV), (피플-세상 속으로-1TV), (순간 포착-세상에 이런 일이-SBS) 등은 가족 프로이면서도, 노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원하는 것이지, 노인 장르를 많이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노인의 생활 리듬에 맞추면서, 노인을 인식하는 편성 의도를 갖고, 함께 보는 프로를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 TV만큼 구설수에 많이 오른 것도 드물다. 공개적인 비판, 개인적인 비난을 통해, 매 순간 마다 위기를 겪는다. 그러나 그때마다 구사일생, 전화위복 등의 형태로 모면하면서, 현재 진행중이다. 정보의 대중화라는 보도적 기능이나 방송을 통한 국민의 사회화에 중심 매체 기능, 자유 시장 경제의 촉진 수단 등의 굵직굵직한 장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나, 비교육성·비윤리성의 대중화, 저급 문화의 중독성 등의 비판들은 가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TV가 지닌 비중으로 보건대, 우리는 계속 비판과 수정을 반복해야 하는 시지프스가 되어야 한다. 찰나적인 비판에 맞서더라도 TV는 이미 우리들의 식구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참조하여, 앞으로 TV가 「효」의 현대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이상은 우리 집 어르신과 주변 분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기술된 것이다.